학교 별관의 앞은 이미 엉망이었다. 별관에서 수업을 하거나 클럽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화제의 탄내와 폭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평소 재난 훈련의 연습대로 차분하게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아이들을 돌본 후 소방서에 신고한 다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건물과 제법 떨어진 곳에서 별관의 출입구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여라도 호기심에 출입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선생님들의 시선을 피하여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일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였다.

스카일러는 학교의 별관 건물의 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근처의 나무를 물색하여 재빨리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하니 곧지 않는 나무의 몸통 줄기가 나무 타기에 딱 알맞을 정도였다. 아이는 평소 하던 놀이처럼 가벼운 몸을 요리조리 움직여 순식간에 2층 높이까지 당도했다. 어른들이 보았다면 기겁을 할 법한 아슬아슬한 몸놀림이었다. 스카일러는 창문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대피한 학교 별관의 2층은 비어 있었다. 소화전이 터져 건물을 전부 태워먹을 만큼 큰 화제로 번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

‘빈 교실… 어느 쪽의 빈 교실이라 했었더라…?’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해두었으면 좋았을텐데, 따위의 후회를 흘려 보내며 스카일러는 악몽에서 겪었던 사건을 떠올렸다. 평일 오후 폭발과 크지 않은 규모의 화제가 난 후 소방차가 올 때까지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 하필 그날 근방의 제일 큰 물류 창고에서 우연처럼 규모 있는 화재가 난 탓에 소방차의 출동 또한 늦어졌다. 아니, 늦어질 예정이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고 아이가 꿈에서 본 불확실한 장면의 파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카일러는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다. 예지몽 등의 오컬트적인 무언가를 믿는 부류는 아니었으나…

‘가만히 있으면 후회할 거 같아.’

아이는 숨을 들이쉬며 나무 줄기 가로 꾸물꾸물 기어가 2층의 창문을 열었다. 애매한 탄내가 학교 별관 건물 곳곳에 퍼져 있었다. 아주 약간은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악몽의 기억에서 별관은 무사했고 화재 또한 소방차가 오기 전 이미 다 진화되어 있었다. 꿈이 맞다면 현재 학교 별관 실내는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없을 터였다. 스카일러는 제발 꿈이 맞기를 바라며 창틀을 너머 건물의 안으로 폴짝 뛰어 들어갔다.

U자 모양으로 지어진 별관 건물의 복도는 제법 길었다. 스카일러가 몰래 기어들어온 장소는 복도의 가장 끝부분. 과학실은 다른 쪽의 막다른 끝부분에 위치했다. 속으로 선생님에게 혼날 만한 욕을 슬쩍 내뱉으며 아이는 황급히 움직였다.

“… …?”

조심성 없이 빈 교실 중 하나로 향하던 스카일러는 다급한 발소리와 닮은 무언가의 기척을 문득 느꼈다. 2층에 알렉스처럼 아직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던 걸까? 본격적으로 의아해하기도 전, 자그마한 기척은 착각이었다는 듯이 밖의 어수선한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던 스카일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 있어?”

“… …”

”별관에 불이 났다는데 어서 대피해. 바로 아래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찾고 있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아마… 소화기도 터졌을 거야.”

스카일러 답지 않은 퍽 상냥한 어조에 얌전히 숨을 죽이고 움직이던 기척이 슬그머니 몸을 드러냈다. 자신을 조용히 따라오던 기척의 장본인을 알아챈 스카일러는 일순간 놀라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버 브레이였다. 리버는 우물쭈물 고민하는 기색으로 제자리를 빙글빙글 서성거리더니 이내 스카일러의 근방으로 바짝 다가왔다.

“너도 알렉시스를 찾으러 온 거야?”

리버의 질문에 스카일러는 번개라도 맞은 양 얼어붙었다. 그걸 이 동급생이 어떻게 알고 있지? 설마 리버 브레이도 자기와 같은 ‘예지몽’을 꾼 것일까? 여러 상황과 여러 의혹들이 머리속에서 겉잡을 수 없이 퐁퐁 솟아올랐다. 상대의 당황하는 기색을 눈치챈 리버가 황급히 덧붙였다.

“아, 알렉시스가 과학실에서 만나자고 했거든. 과학 숙제를 도와주면 저번에 빼앗아간 반짝이 펜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과학실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아무데도 안 보이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끝을 흐리는 리버의 말에 스카일러는 평소의 재미없고 애교 없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리버 브레이’ 또한 자신과 같은 예지몽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카일러는 리버가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리버는 스카일러의 떨떠름함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는지 괜히 옆에서 더 주저리주저리 덧붙였다.

“몰래 들어온 건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을게. 나도 몰래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일러바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혼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야. 갑자기 사람을 만날줄은 몰랐으니까 놀라서 그래.”

변명 같은 동급생의 그 말에 리버는 마음이 놓였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희미한 화색을 보였다. 리버는 보기보다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아이였다. 평소에는 항상 풀이 죽어 있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 스카일러는 우연한 기회로 낯선 동급생의 다른 면모를 알아버리고야 말았다. 마음 한 구석의 잘 감춰둔 물렁하고 보드라운 부위를, 스카일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한입 크게 씹어버린 것만 같은 감각이었다.

“과학실 문 열건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가 있어.”

“나도 도와… …”

“굼뜨게 움직이다 다쳐서 짐만 두 배로 늘리지 말고.”

스카일러는 공연히 죄 없는 사람을 향해 퉁명스레 삐죽이고는 동급생을 가로질러 먼저 과학실 문을 향해 척척 걸어갔다. 바로 이전 수업이 없었는지 과학실은 닫혀 있었다. 아이는 손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어 손잡이의 온도가 평소와 다름없음을 느끼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열고 들어가자 문가 표본이 떨어짐